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미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의  
‘소리 세계’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를 중심으로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김 민 주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의  
‘소리 세계’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를 중심으로

김 미 영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김 민 주

# 인 준 서

김민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 지형주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김미영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이혜진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 1860~1911)의 ‘소리세계’(Klangwelt)를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론적 근거는 비스키르헨(Hubert Wißkirchen, 1934~2018)이 정리한 말러의 ‘소리세계’(Klangwelt)이다. 비스키르헨은 말러의 소리세계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말러가 살며 겪은 현실세계를 나타낸 ‘문명적 소리’(Zivilisationslaute)와 문명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자연적 소리’(Naturlaute),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예술적 소리’(Kunstlaute)이다.

연구방법은 먼저 말러의 삶을 알아보고, 그 삶을 통해 형성된 ‘소리세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가 직접 쓴 가사로 작곡된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에 나타난 ‘소리세계’를 비스키르헨의 이론을 근거로 ‘문명적 소리’, ‘자연적 소리’ 그리고 ‘예술적 소리’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말러는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의 화자가 처한 현실세계를 ‘문명적 소리’로 표현하였는데, 제1곡 <나의 연인이 결혼하는 날>의 결혼식 분위기를 나타낸 보헤미아 춤곡 리듬, 제4곡 <두 개의 푸른 눈>에서 세상과 작별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장송곡 리듬으로 나타낸 것이 있다. 우울한 현실을 벗어나 화자에게 잠시나마 안식을 주는 자연을 말러는 ‘자연적 소리’로 나타냈고, 이는 제1곡 <나의 연인이 결혼하는 날>과 제2곡 <오늘 아침 들관 위를 걸었다>에 나오는 자연을 묘사하여 표현한 것과 제4곡 <두 개의 푸른 눈>의 보리수 음형이다. 말러 이전부터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작곡가들이 사용하던 관용적인 음악표현기법들은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에서 말러가 화자의 감정변화를 나타내기 위한 ‘예술적 소리’로 사

용하였다. 이는 화자의 심경변화를 표현한 장·단조를 대조시킨 것과 슬픔을 나타낸 하행하는 선율, 반음계적 진행, 그리고 불협화음 등이 있다. 또한 말러는 그의 작품에서 곡의 마지막에 타악기를 사용하여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제3곡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에도 나타나 있으며 이는 ‘예술적 소리’로 분류될 수 있다.

말러가 성장하면서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들은 ‘문명적 소리’가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현실을 벗어나 자연에서 안식을 찾던 그의 삶의 방식은 ‘자연적 소리’를 만들었으며, 빈 대학에서 받은 음악교육과 지휘자로서의 경험이 그의 ‘예술적 소리’를 형성하게 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말러의 생애와 작품 .....	3
III. 말러의 소리세계 .....	8
IV.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에 나타난 말러의 소리세계 .....	15
1. 제1곡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	15
2. 제2곡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	29
3. 제3곡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	40
4. 제4곡 <두 개의 푸른 눈> .....	51
V. 결론 .....	61

##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 부 록

## 표 목차

표1) 말러의 연보와 주요 작품 .....	6
표2) 비스키르헨이 정리한 말러의 소리세계 .....	12
표3) 제1곡 <나의 연인이 결혼하는 날> 분석개요 .....	16
표4) 제2곡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분석개요 .....	30
표5) 제3곡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분석개요 .....	41
표6) 제4곡 <나의 연인의 두 개의 푸른 눈> 분석개요 .....	52

## 악보 목차

악보1)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1-4, 클라리넷.....	17
악보2)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1-8, 총보.....	18
악보3)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10-17, 총보.....	19
악보4)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30-33, 성악.....	20
악보5)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28-29, 목관.....	20
악보6)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38-43, 총보.....	21
악보7)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44-47, 현.....	22
악보8)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57-61, 성악.....	22
악보9)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50-54, 총보.....	23
악보10)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55-56,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24
악보11)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64-67, 총보.....	25
악보12)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22-28, 총보.....	25
악보13)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77-80, 총보.....	26
악보14)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89-96, 총보.....	27
악보15)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1-4, 총보.....	31
악보16)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11-12, 성악, 콘트라베이스.....	32
악보17)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14-22, 총보.....	33
악보18)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25-26, 현.....	34
악보19) 요한 슈트라우스 《Wiener Blut》 중 <Walzer I> 현.....	34
악보20) 라벨 《La Valse》 중 현.....	34
악보21)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27-30, 바이올린, 비올라.....	35
악보22)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71-73, 바이올린, 성악.....	35
악보23)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85-88, 성악.....	36
악보24)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99-105, 총보.....	36
악보25)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115-118, 총보.....	37

악보26) <오늘 아침 들관 위를 걸었다>, 마디119-122, 성악.....	38
악보27) <오늘 아침 들관 위를 걸었다>, 마디124-127, 솔로 바이올린.....	38
악보28)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1-4, 총보.....	42
악보29)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5-8,목관, 금관, 바이올린, 비올라 .....	43
악보30)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20-23, 팀파니, 현, 성악.....	43
악보31)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9-10, 성악.....	44
악보32)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26-28, 성악.....	44
악보33)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40-42, 성악.....	44
악보34)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45-51, 총보.....	45
악보35)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62-64, 성악.....	46
악보36)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67-74, 총보.....	47
악보37)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76-80, 총보.....	48
악보38) <지상의 삶>, 마디129-136, 총보.....	49
악보39) <두 개의 푸른 눈>, 마디1-4, 총보.....	54
악보40) <두 개의 푸른 눈>, 마디17-20, 총보.....	55
악보41) <두 개의 푸른 눈>, 마디27-31, 성악.....	56
악보42) <두 개의 푸른 눈>, 마디41-44, 성악.....	56
악보43) <두 개의 푸른 눈>, 마디39-40, 하프.....	57
악보44)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예토>, 마디26-28. 하프.....	57
악보45) 슈베르트 <보리수>, 마디1-12.....	58
악보46) <두 개의 푸른 눈>, 마디60-67, 총보.....	59

## I. 서론

독일의 음악학자 에게브레히트(Hans Heinrich Eggebrecht, 1919~1999)는 그의 책 『말러의 음악』에서 ‘말러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대해 서술했다. 그는 말러가 ‘문명화된 세계’와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역사를 초월하는 세계’를 음악적으로 명명했다고 설명한다.<sup>1)</sup> 이것을 토대로 음악교육가 비스키르헨(Hubert Wißkirchen, 1934~2018)은 말러의 ‘소리세계’(Klangwelt)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정리했다. 이는 말러가 살며 겪은 현실세계를 나타낸 ‘문명적 소리’(Zivilisationslaute)와 문명에 영향을 받지 않은 ‘자연적 소리’(Naturlaute),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그가 느낀 감정을 표현한 ‘예술적 소리’(Kunstlaute)이다.<sup>2)</sup>

작곡가들이 자신의 삶을 작품에 반영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온 사실이지만, 세계관이 뚜렷하게 ‘명명(benennen)’되어있다는 것이 연구자에게 흥미롭게 다가왔다. 하지만 말러의 ‘소리세계’를 다룬 외국서적은 있으나, 국내의 연구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연주자가 ‘소리세계’ 이론을 근거로 하여 말러의 가곡을 연구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말러의 삶과 ‘소리세계’를 이해하여 말러의 작품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그의 작품의 연주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의 범위로 말러의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택하였는데, 이는 말러가 제1곡을 제외하고<sup>3)</sup>는 가사를 직접 썼기 때문에 그가 의도한 ‘소리세계’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분석연구 되

---

1) Hubert Wißkirchen, *Wort-Ton-Analyse* (Kassel: Gustav Bosse Verlag, 2002), 161에서 재인용.

2) Wißkirchen, 위의 책, 164.

3) 제1곡의 가사는 민속시집인 『어린이의 요술피리』(Des Knaben Wunderhorn)에서 가져왔다.

었다. 학술정보서비스(Riss)에 이 연가곡을 검색하면 81개의 학위 논문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분석연구들이며<sup>4)</sup>, 말러의 교향곡과의 상관관계 연구<sup>5)</sup>, 낭만주의 관현악가곡으로서의 관점에서의 연구<sup>6)</sup> 등이 있다. 말러의 ‘소리세계’를 중심으로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고찰하는 선행연구는 없으므로,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말러의 가곡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방법으로 먼저 말러의 삶과 음악가들이 주장한 ‘소리세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말러의 ‘소리세계’가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비스키르헨이 분류한 이론에 따라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에 나타난 ‘소리세계’를 분류하고 고찰할 것이며, 같은 기법을 사용한 다른 작품들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말러의 삶을 통해 형성된 ‘소리세계’를 들여다보고 그가 느낀 감정들을 공감하는 연주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4) 이효섭, “G.Mahler의 가곡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에 관한 연구분석”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정찬욱,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 1860~1911)의 연가곡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분석연구 : 가사와 관현악 반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김주리, “Gustav Mahler의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의 분석연구 : 시와 음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등이 있다.

5) 안미선, “Gustav Mahler의 Symphony no.1 in D major에 나타난 연가곡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등이 있다.

6) 한영주, “낭만주의 오케스트라 가곡 연구 : G. Mahler의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등이 있다.

## II. 말러의 생애와 작품

말러는 1860년 7월 7일 보헤미아 지방의 칼리슈트(Kalischt)에서 태어나 석 달 후 이글라우(Iglau)로 이사하여 이곳에서 성장했다. 체코지방의 한 가운데 있던 이곳에는 체코인과 독일인이 살고 있었고, 독일어가 통용되는 곳이었다. 프란츠 요제프 황제의 소수인종 탄압을 완화하는 정책에 따라 이글라우에 유대인 거주가 허용되어 이곳의 유대인의 수는 증가했고, 말러의 가족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완전한 자유는 허락되지 않았고, 체코인과 독일인의 핍박은 계속되어 그들은 이방인의 삶을 살아야만 했다. 말러는 “나는 삼중으로 고향이 없는 사람이다. 오스트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헤미안이요, 독일인들 가운데서는 오스트리아인이며, 세계에서는 유대인이다. 나는 언제나 불청객이며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한다.”<sup>7)</sup>고 말했다. 독일어 ‘하이마트(Heimat)’는 그저 고향이라는 의미 외에도 개인의 뿌리와 타고난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대인 말러에게는 집이라 부를 만한 곳이 존재하지 않았다.<sup>8)</sup> 그는 빈(Wien)에서 음악을 공부하는 동안에도 배움과 존경의 대상이었던 브루크너(Anton Bruckner, 1824~1896)와 바그너(Richard Wagner, 1813~1883)로부터 받는 유대인을 향한 경멸을 감내해야만 했다.

말러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여 네 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여섯 살 때는 《장송행진곡 도입부가 딸린 폴카》(Polka mit einem Trauermarsch als Einleitung)를 작곡했다. 1870년 열 살이 되던 해, 이글라우 극장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가졌다. 1875년 빈으로 거처를 옮겨 빈 대학에 입학한 뒤, 음악교육 뿐 아니라 철학과 역사, 음악사, 미술사도 공부했다.

이 시기의 말러는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스스로를 음악가이자 시인

---

7) Norman Lebrecht, 『왜 말러인가?』, 이석호 번역 (경기도: 모요사, 2010), 49에서 재인용.

8) Lebrecht, 위의 책, 49.

으로 지칭하며 문학 동호회를 만들어 활동했다. 그리스의 고전사상, 셰익스피어,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문학, 독일의 신비주의, 톨스토이 등 광범위한 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독일의 철학자 칸트, 쇼펜하우어, 니체의 영향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문학적 자양분은 말러가 교향가곡 작곡가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빈에서 공부를 마친 후, 1897년 5월 빈의 오페라 극장의 음악감독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말러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냈다. 처음부터 극장 지휘자의 삶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밀린 집세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공연과 직책에 최선을 다했고, ‘작품 그 자체에 도달하기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sup>9)</sup> 지휘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음악적으로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의 태도는 성악가나 오케스트라 그리고 극장의 경영진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뛰어난 지휘자로서 명성을 얻게 하였다.<sup>10)</sup>

말러는 지휘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작곡활동에 힘썼다. 1891년부터 함부르크 극장 지휘자로 재직 하던 때에는 매일 아침 작곡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고, 여름휴가 때에는 슈타인바흐(Steinbach)에 머물며 작곡에 전념했다. 1894년 이 곳 호수 옆에 작곡가의 오두막을 지어 그곳에서, 교향곡 2번과 3번을 완성했다. 1900년 울창한 산과 호수로 둘러싸인 마이어니히(Maiernigg)에 집을 짓고 1907년까지 이곳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며 교향곡 4번, 5번, 6번, 7번 그리고 8번의 작곡을 진행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작품을 자연 속에서 작업한 것이다.<sup>11)</sup>

말러의 작품은 대부분 가곡과 교향곡, 이 두 분야에 집중되어있다. 그리고

---

9) Bruno Walter, 『구스타프 말러』, 김병화 번역 (서울: 도서출판 마티, 2010), 137.

10) 부다페스트에서 말러가 지휘하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Don Giovanni)를 관람한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는 말러의 지휘에 매료되어 “말러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를 자임했다. Lebrecht, 『왜 말러인가?』, 111에서 재인용.

11) 1907년 말러의 딸 마리아 안나(Maria Anna Mahler, 1902~1907)가 죽은 후 그는 마이어니히 별장을 정리했다.

초기에 해당되는 1880년에서 1892년 사이에 작곡한 14편의 가곡만 피아노 반주로 되어있고, 그 이후의 가곡은 대부분 오케스트라 반주이다. 동시대의 대표적인 가곡작곡가였던 볼프(Hugo Wolf, 1860~1903)와 비교했을 때, 말러가 남긴 가곡작품의 수는 40여편 정도로 많지 않으나, 독일 가곡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의미는 말러가 가곡과 교향곡을 결합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게 했다<sup>12)</sup>는 것에 있다.<sup>13)</sup>

말러는 낭만주의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가던 바그너의 음악과 그의 오페라를 높이 평가하였고, 동시에 고전주의의 전통을 이어가는 브람스의 작품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제1 빈 악파의 영향을 받으며 음악적으로 성장한 그는 교향곡 형식을 절정에 이루게 하였고, 그의 음악은 제2 빈 악파를 이끌었던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 1874~1951)를 비롯하여 쇼스타코비치(Dmitrii Shostakovich, 1906~1975)와 브리튼(Benjamin Britten, 1913~1976)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의 작품에는 위대한 음악가들에 대한 존경심과 자연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살아가며 겪은 아픔과 고통, 갈등과 번민 그리고 연인을 향한 애정이 들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의 음악 속에서 어떻게 소리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표는 말러의 연보와 주요 작품들에 대한 정리이다.

---

12) 교향곡 1번에서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 2곡 <오늘 아침 들판을 가로질러 갔네>를 1악장의 주제로 사용하였고, 2악장에서 가곡 <한스와 그레트>, 3악장에서는 <길에서 있는 보리수>를 사용하였다. 교향곡 2번, 3번, 4번에서는 《소년의 빨피리 가곡집》의 가곡들이 사용되었다. <과두아의 안토니우스가 물고기에게 한 설교>의 멜로디가 제2번의 3악장에, <최초의 빛>이 4악장에 사용되었다. 교향곡 3번의 3악장과 5악장에서는 <뻐꾸기>와 <가난한 거지아이의 노래>의 선율이 나타나고, 4악장에서는 알토가 <차라투스스트라의 한밤중의 노래>를 부른다.

13) 장미영, 『문학의 영혼 음악의 영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147.

표1) 말러의 연보와 주요 작품

활동사항	년도	주요작품
7월 7일 출생	1860	
김나지움 입학	1869	
피아니스트 데뷔, 이글라우 극장	1870	
빈 대학 입학	1875	
	1876	탄식의 노래 (Das klagende Lied)
할 극장의 지휘자(여름시즌)	1880	젊은 날의 노래 (Lieder und Gesänge aus der Jugendzeit)
라이바흐 극장의 지휘자로 재직	1881	
1월~3월 올뮌츠 극장 지휘자 카셀 극장 지휘자(1885년까지)	1883	
	1884	방랑하는 젊은이의 노래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라이프치히 극장 지휘자 7월 프라하극장 악장	1885	
라이프치히 극장 지휘자(2년)	1886	
10월 부다페스트 왕립극장 지휘자	1888	교향곡 1번
말러의 부모 사망	1889	
3월 함부르크 시립극장 지휘자 (1897년까지)	1891	
	1894	교향곡 2번

동생 오토 자살	1896	교향곡 3번
가톨릭으로 개종 후 빈 오페라극장 음악감독 취임	1897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겸임 (1901년까지)	1898	소년의 마술뿔피리 (Des Kanaben Wunderhorn)
	1899	교향곡 4번
	1900	교향곡 4번
알마 선들러와 결혼 11월 첫 딸 안나 마리아 출생	1902	교향곡 5번
	1903	뤼케르트 시에 의한 5개의 가곡 (Fünf Lieder nach gedichten von Rükert)
	1904	교향곡 6번 죽은 아이들을 그리는 노래 (Kindertotenlieder)
	1905	교향곡 7번
5월 빈 극장 음악감독 사임 장녀 사망 심장병 발견 12월 미국으로 이주	1907	
	1908	교향곡 8번 대지의 노래 (Das Lied von der Erde)
	1909	교향곡 9번
4월 빈으로 돌아옴 5월 18일 사망	1911	

### Ⅲ. 말러의 소리세계

말러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글라우는 푸른 호수와 버려진 성을 찾을 수 있는 울창한 숲, 사격연습장의 총소리가 울리는 군부대, 장터의 마차소리, 밴드소리가 흘러나오는 선술집이 어우러져 있었다. 또한 매일같이 마을 광장을 행진하던 군악대소리와 유태교 의식에 사용되는 클레츠머<sup>14)</sup> 밴드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다. 1895년 오두막을 찾아온 발터(Bruno Walter, 1876~1962)에게 말러는 “바깥을 내다보지 말게. 내 이미 모든 것을 음악에 담아놓았으니”라고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 소리가 들리나? 저것이 바로 폴리포니이며, 내가 폴리포니를 이해하는 방식일세! 이글라우 숲속을 거닐던 어린 시절부터 이런 현상은 내게 기이한 인상을 남겼지. 다 마찬가지로야... 이처럼 시끄러운 소리, 수천 마리의 새의 노래 소리, 휘몰아치는 폭풍우 소리,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와 불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말일세.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주제가 떠오르는 거지. 서로 리듬과 선율을 달리하는 주제가 말이야...그리고 예술가의 일이란 이러한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로 통일하는 것일세.”<sup>15)</sup>

위의 글로 말러가 어린 시절 보고 들은 것들이 그에게 음악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빈에서 받은 음악교육과 더불어 말러의 ‘소리세계’ 형성에 바탕이 되었다. 에게브레히트는 그의 책 『말러의 음악』에서 말러의 음악적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

14) Klezmer, 동유럽의 아슈케나지 특유의 음악 전통. 클레츠머라는 어휘는 ‘악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Kley’와 ‘노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zemer’의 연결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리더의 행위에 따라 음울한 분위기와 미친 듯 흥분된 분위기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규율적인 음악인 군악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Lebrecht, 『왜 말러인가?』, 57.

15) Lebrecht, 위의 책, 48에서 재인용.

“말리는 두 가지 임의의 세계를 음악적으로 명명했는데, 첫 번째는 문명화된 불쾌한 세계-위선과 불신, 혹은 세계의 움직임에 대한 무의미 속에 갇힌 사람들(거미줄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모기처럼)이 사는 곳, 두 번째는 손대지 않은 ‘다른’ 세계인데, 현존하는 세계 속에서 자연만이 시간에 상관없이 역사를 초월한다고 보았다.”<sup>16)</sup>

위의 글에서 문명화된 세계, 즉 말리가 살아가야 했던 세상이 그에게 불쾌한 세계가 된 것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그가 유대인이라는 태생적 이유이다. 그는 “어디서나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아챈다”고 분노한 바 있다.<sup>17)</sup> 말리의 아버지는 장애를 갖고 있던 어머니를 학대하며 집안의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고, 그러한 상황을 접할 때 그는 집에서 도망 나와 숲속의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기도 하며 불안한 유년기를 보냈다. 그의 나이 15세 때 형제 중 그와 가장 친했던 동생 에른스트가 심장질환으로 인해 죽는 것을 보았고, 1889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해 열 달 간격으로 사망했다. 1895년 동생 오토는 우울증으로 자살했고, 1907년에는 첫 딸 마리아를 잃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심장병까지 더해져 말리가 사는 동안 죽음이라는 것은 그의 주변 가까이에 있었다. 또한 19살 연하였던 알마(Alma Mahler, 1879~1964)와의 결혼 생활은 그녀의 위도와 사치로 말리에게 평온함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그가 겪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그는 세상에서 즐거움과 희망을 느끼기보다 절망과 아픔을 느끼는 일이 많았고, 현실세계는 그에게 불쾌한 세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말리가 브루노발터에게 한 다음의 말에서 그가 삶에 대한 고통스런 고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6) Wißkirchen, *Wort-Ton-Analyse*, 162에서 재인용.

17) Lebrecht, 『왜 말리인가?』, 162.

1897년 빈 궁정 오페라단의 지휘자 자리에 원서를 넣었을 때, 유대인의 고용을 반대하는 통보를 받고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나서야 취임하게 된다.

“우리는 언제 존재했는가? 무엇이 우리를 엮매고 있는가? 쇼펜하우어가 말하듯이, 생겨나기 전부터 내가 이 삶을 원했다는 것이 진실일까? 나는 왜 자유롭다고 착각할까? 내 성격 때문에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말일세. 이렇게 괴롭고 애를 쓰는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일지... 신은 자애롭다고 하면서 어찌 하여 이런 잔인함과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죽음이 마침내 내 삶의 의미를 밝혀줄까?”<sup>18)</sup>

말러가 현실에서 느낀 이러한 불쾌한 체험은 그의 음악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카를 요제프 물러(Karl-Josef Müller, 1937~2001)는 그의 책 『말러: 삶·작품·기록』(Mahler: Leben·Werke·Dokumente)에서 말러에게 현실세계는 위선(Heuchelei)과 거짓(Lügenhaftigkeit), 사기(Trug)와 경망함(Leichtsinn)이었기에 그의 삶이 비참(elend)했었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말러의 음악에 반영(Wiederbild)되었다고 말한다.<sup>19)</sup>

에게브레히트는 말러의 음악에 나타난 이러한 소리를 ‘문명적 소리’(Zivilisationslaute)라고 말한다. 그는 말러의 작품에서 장송곡 음형, 군대행진음악의 요소(시그널 4도, 부점 리듬, 스타카토, 밀리터리 드럼), 낭독조의 멜로디(deklamatorische Melodik) 등 세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들이 ‘문명적 소리’라고 하였다.<sup>20)</sup>

에게브레히트에 의하면 이 문명적 소리와 대립되는 것이 말러에게는 “자연적 소리”(Naturlaute)였다고 말한다. 말러에게 자연은 특별했다. 말러는 자연을 문명적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역사를 초월하는 이상적인 세계라고 여겼다. 말러는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자연으로부터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음악적 영감을 얻기 위해 어린 시절의 숲을 떠올리거나 직접 오솔길을

---

18) Walter, 『구스타프 말러』, 191.

19) Karl-Josef Müller, *Mahler, Leben·Werke·Dokumente* (Mainz: B.Schott's Schöne, 1988), 570.

20) Wißkirchen, *Wort-Ton-Analyse*, 164에서 재인용.

걷고, 등산을 하며 호숫가를 찾았다. 1895년 당시 연인이었던 소프라노 안나(Anna von Mildenburg, 1872~1947)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말리가 자연으로부터 편안함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침 일찍 그곳으로 향했어요. 모든 것이 눈에 덮여 아주 황홀했소. 차가운 서리 때문에 내 찌뿌듯한 몸—잠을 얼마 못 잤거든요—을 빨리 움직여야 했소. 쉘렌도르프—그곳의 이름이랴오—에 도착해 겨울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던 소나무, 전나무를 헤치고 길을 재촉하는 동안 내 모든 근심이 사라졌소… 마치 대자연이라는 편안한 집 안에 든 것 같은 기분이었죠.”<sup>21)</sup>

이처럼 그의 작품에서 자연은 말리에게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한다. 브루노 발터는 말리에 대해 “그는 자기 자신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마음속에서 자연의 심장박동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sup>22)</sup>

에게브레히트는 말리가 “자연적 소리”(Naturklänge)를 표현하기 위해 종소리, 알프스 호른 멜로디, 3도·5도 진행의 호른 음정, 동물소리, 자연음계, 단순하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민속노래의 선율과 간단한 화성의 장조 카덴차, 지속음, 메아리와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고 말한다.<sup>23)</sup>

비스키르헨(Hubert Wißkirchen, 1934~2018)은 에게브레히트가 말한 ‘문명적 소리’와 ‘자연적 소리’ 사이의 표현세계를 “예술적 소리”(Kunstklänge)라고 설명한다. 비스키르헨이 말하는 ‘예술적 소리’는 말리의 음악에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그것은 말리 이전부터 작곡가들이 음악에서 사용해 온 것으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예술적 방식이다.<sup>24)</sup> 작곡가들

21) Lebrecht, 『왜 말리인가?』, 152.

22) Walter, 『구스타프 말리』, 169.

23) Wißkirchen, *Wort-Ton-Analyse*, 164에서 재인용.

24) Wißkirchen, *Wort-Ton-Analyse*, 164.

은 장·단조를 바꾸는 기법, 템포의 변화, 낮은 음역, 고통을 나타내는 하행하는 4도, 갑작스러운 다이내믹의 변화,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불협화음 등으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려 하였다. 말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양쪽세계, 즉 문명적 세계와 자연적 소리로 표현된 이상세계에 대해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하였다.

다음은 비스키르헨이 정리한 말러의 ‘소리세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2) 비스키르헨이 정리한 말러의 소리세계<sup>25)</sup>

문명의 세계 (Zivilisationswelt) 번잡한 세상		‘다른’ 세계 (Die ‘andere’ Welt) 이상세계
문명적 소리 (Zivilisationslaute)	예술적 소리 (Kunstlaute)	자연적 소리 (Naturlaute)
세상의 움직임 표현	인간이 느끼는 감정 (관용적인 예술 표현)	자연을 나타내는 것
-행진음악 요소 (부점 리듬, 스타카토, 팡파레, 신호음, 북소리) -장송곡 음형 -낭독조의 멜로디	-단조 (장조와 반대개념) -조성 변화 -느린 템포, 낮은 음역 -신음하는 음형 -하행하는 4도 음형 -불협화음 -반음계적 진행 -단조에서 비어있는 5도 -시각적인 셈여림	-자연음계 -알프스 호른 멜로디 -완전 4도 음정 -민속노래 -원시적, 민속적 춤음악 -간단한 화성, 장조 카덴차 -3도 진행, 호른 5도 진행 -장조에서 비어있는 5도 -부르동(3도, 6도 병행진행)

25) Wißkirchen, 위의 책, 164.

본 연구자는 말러의 ‘소리세계’를 고찰하면서 그가 현실세계에서 감당해야 하는 삶에 대한 의문과 갈등, 어려움(문명적 소리로 표현)을 음악적으로 쏟아내고(예술적 소리로 표현), 또한 그는 그가 만든 음악적 이상세계(Die andre Welt, 자연적 소리로 표현)를 통해 위로받으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도르노(Theodor Ludwig Wiesengrund Adorno, 1903~1969)는 그의 책 『말러, 음악적 인상학』에서 말러 음악의 이러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말러는 그저 단순히 숭배와 죽음의 음조를 통해서 위해(危害, 위험과 재해)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음악적 처리 방식 자체가, 더 이상 거기에 놀아나지 않고, 전혀 아무런 희망이 없으면서도 살아보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어떤 역사적 의식에 대한 증언이 되는 것이다.”<sup>26)</sup>

말러의 인생과 음악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sup>27)</sup>고 주장한 지휘자 얀손스(Mariss Jansons, 1943~ )는 샤우플러(Wolfgang Schauffler, 1963~ )와의 인터뷰에서 말러 음악이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말러 음악이 모든 것을 포용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 안에는 우주, 자연, 인간, 비극, 사랑, 증오, 아이러니, 투쟁 등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삶과 말러의 세계를 결합시킬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누구에게는 더 많고, 누구에게는 더 적을 뿐이다.(...) 말러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말러 교향곡 연주가 언제나 사건이 되는 이유에 대한 내 설명은 이 한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8)</sup>

---

26) Theodor W. Adorno, 『말러, 음악적 인상학』, 이정하 번역 (서울: 책세상, 2004), 275.

27) Wolfgang Schauffler, 『말러를 찾아서』, 홍은경 번역 (서울: 포노, 2019), 193.

28) Schauffler, 위의 책, 192.

본 연구자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말러의 ‘소리’를 형성하게 한 세계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계와 다르지 않다. 말러의 삶이 반영된 ‘소리세계’를 들여다보고 그의 인생에서 느낀 감정들을 공감할 수 있다면, 작품에 내재된 의미를 표현하는 연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IV.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에 나타난

### 말리의 소리세계

지금까지 정리한 말리의 삶이 반영되어 형성된 ‘소리세계’가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연가곡은 말리가 카셀(Kassel)오페라극장에서 지휘자로 재직하던 시절 소프라노 요한나(Johanna Richter, 1858~1943)에게 실연을 당한 후 작곡 한 것이다.

가사는 말리가 직접 썼고 제1곡만 민속시집인 『어린이의 요술피리』(Des Knaben Wunderhorn)에서 가져왔다. 1885년 피아노반주로 작곡하였다가 1896년에 오케스트라 반주를 붙였다. 독일어 가사는 본 연구자가 번역하였고, 말리의 ‘소리세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오케스트라 악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 1.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Wenn mein Schatz Hochzeit macht)

##### [가사]

Wenn mein Schatz Hochzeit macht,  
fröhliche Hochzeit macht,  
hab' ich meinen traurigen Tag!  
Geh' ich in mein Kämmerlein,  
dunkles Kämmerlein,  
Weine, wein' um meinen Schatz,  
um meinen lieben Schatz!

Blümlein blau! Blümlein blau!  
Verdorre nicht! Verdorre nicht!  
Vöglein süß! Vöglein süß!

나의 연인이 결혼하는 날,  
즐거운 결혼식 날,  
나에게는 슬픈 날이다!  
나는 작은 방으로 간다,  
어두운 작은 방에서,  
나는 운다, 연인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 때문에!

푸른 작은 꽃이여! 푸른 작은 꽃이여!  
시들지 마라! 시들지 마라!  
초록빛 들뜰에서 노래하는

Du singst auf grüner Heide!  
 Ach! Wie ist die Welt so schön!  
 Ziküth! Ziküth!  
 Singet nicht! Blühet nicht!  
 Lenz ist ja vorbei!  
 Alles Singen ist nun aus!

Des Abends, wenn ich schlafen geh',  
 Denk' ich an mein Leide!  
 An mein Leide!

귀여운 작은 새여! 귀여운 작은 새여!  
 아!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짹! 짹!  
 노래하지 마라! 피어나지 마라!  
 봄은 지나갔다!  
 이제 노래를 멈추어라!

밤에, 고통을 느끼며,  
 나는 잠이 든다.  
 고통을 느끼며!

표3) 제1곡 <나의 연인이 결혼하는 날>의 분석개요

구조	세도막 형식		
	A(마디1~43)	B(마디44~63)	A'(마디64~97)
박자	2/4	6/8	2/4
조성	d단조 - g단조	E♭장조 - F장조	d단조 - g단조
빠르기말	빠르게(Schneller) 느리게(Langsamere)	부드럽게 움직이게 (Sanft bewegt) 질질 끌지 않게 (Nicht schleppen)	처음과 같이 (Wieder wie zuerst) 빠르게(Schneller) 느리게(Langsamere)
주요내용	연인의 결혼식을 슬퍼함	자연의 세계로 잠입하려 하지만 현실세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적화자의 내면	잠을 자면서도 고통을 느낌
주요악기 연주기법	클라리넷1, 2 (목관악기) 현악기 약음기 사용	바이올린 솔로 현악기 약음기 제거	클라리넷1, 2 (목관악기) 현악기 약음기 사용

제1곡은 화자가 사랑했던 연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며 슬퍼하는 내용을 노래한다. 전주(마디1-4)는 3도 화음 모티브의 클라리넷 연주로 시작되는데(악보1), 이 음형은 푸리안트(furiant) 춤곡에서 가져온 것이다. 푸리안트는 리듬이 변화하는 3박자의 동작이 빠른 보헤미아 민속춤이다. 체코 지역에서 태어난 말러가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보헤미아 음악의 영향을 받은 것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러는 이를 통해 결혼식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악보1)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1-4, 클라리넷



에게브레히트는 민속 춤곡을 ‘자연적 소리’라고 하였는데, 본 연구자는 이 춤곡 음형에 ‘문명적 소리’, ‘자연적 소리’ 그리고 ‘예술적 소리’ 세 가지의 ‘소리세계’ 의미를 모두 주고자 한다. 먼저 이 음형은 춤곡의 리듬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연적 소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식’은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문명적 소리’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이 음형이 단조로 표현된 것은 화자가 연인의 결혼식을 지켜봐야하는 우울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예술적 소리’ 라고 할 수 있다.

마디5부터 노래가 시작하며 템포는 느려진다. 노래는 가사 “나의 연인”(Wenn mein Schatz)을 전주의 푸리안트 모티브가 확장된 음가로 부른다(악보2).

악보2)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1-8, 총보

The musical score is for the piece 'My Bride' (악보2), measures 1-8. It features a variety of instruments and dynamic markings. The tempo markings are 'Schneller', 'Langsamer', and 'Schneller'. The dynamics include *mf*, *p*, *ff*, and *pp*. A blue circle highlights a triplet in the Singing Voice part, and a blue arrow points from it to the Violoncello part. The lyrics 'Wenn mein Schatz Hochzeit macht.' are written below the Singing Voice staff.

이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결혼식 분위기와는 다른 우울한 화자의 기분을 나타내는 ‘예술적 소리’이다. 마찬가지로 화자의 공허한 마음을 약음기(mit Dämpfer)를 낀 현악기의 음색과 첼로의 빈5도<sup>29)</sup>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도 ‘예술적 소리’로 볼 수 있다(악보2).

마디5에서 노래가 시작된 후에 중간에 연주지시어 ‘보다 빠르게’(schneller)가 삽입된다. 또한 마디44의 B부분 전까지 ‘보다 느리게’(Langsamer)와 ‘보

29) 장조에서 나타나는 빈5도는 ‘자연적 소리’로, 단조에서 나타나는 빈5도는 ‘예술적 소리’로 분류된다.

다 빠르게'(Schneller)가 반복된다(악보3). '보다 빠르게' 연주되는 부분은 화자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결혼식 상황을 나타내는 '문명적 소리'이고, '보다 느리게' 부분은 화자의 우울함을 노래하는 '예술적 소리'로 분류할 수 있다.

악보3)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10-17, 총보

The musical score for 'My Bride's Wedding Day' (마디 10-17) is presented in a full orchestral arrangement. It is in 2/4 time and features a variety of instruments. The score is divided into four sections: 'Langsamer' (Slower), 'Schneller' (Faster), 'Langsamer' (Slower), and 'Schneller' (Faster). Dynamics include mf, pp, p, f, and mit Dämpfer. The singer's lyrics are: 'fröh - li - che Hoch - zeit macht, hab' ich mei - nen trau - ri - gen Tag!'.

마디14-17의 A<sub>4</sub>음에서 F<sub>5</sub>음까지 단6도 도약 후 다시 원래의 A<sub>4</sub>음까지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선율은 가사 “나에게는 슬픈 날이다”(hab' ich meinen traurigen Tag!)에 담겨진 화자의 슬픔을 표현한 것으로 '예술적 소리'이다

(악보3).

마디30의 시어 “운다”(Weine!)의 단2도로 하행하는 모티브도 신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사학적 음형으로 ‘예술적 소리’로 분류 할 수 있다(악보4).

악보4)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30-33, 성악

Singst. *espress.*

wei - ne, wein um mei - nen Schatz,

마디28에서 결혼식 음악으로 상징되는 푸리안트 모티브는 장조로 바뀐다(악보5). 이 모티브는 앞부분에서 단조로 나타났는데, 실제 장조로 연주되는 결혼식 음악이 화자의 우울한 기분에 의해 단조로 들렸거나, 혹은 그 기분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앞부분의 춤곡소리를 예술적 소리로 분류하였다면, 이 부분에 나타난 음형은 민속 춤곡을 ‘자연적 소리’로 보는 에게브레히트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 ‘자연적 소리’로 분류하겠다.

악보5)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28-29, 목관

*Schneller*

1.2. Fl.  
1.2. Ob.  
1.2. Kl.  
1.2. Fag.

*f*

B b 장조

노래가 끝나며 이어지는 6마디 간주(38-43)에서 16분음표, 셋잇단음표, 8분음표로 음가가 늘어나며, 연주 지시어 ‘점점 느리게’(Poco rit)는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킨다(악보6). 말리는 이러한 간주를 통해 고통에 빠진 화자가 회상으로 빠지거나 잠이 드는 모습을 묘사한다.

악보6)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38-43, 총보

The musical score is for measures 38-43, marked 'Schneller' and 'poco rit.'. It includes parts for 1.2. Fl., 1.2. Ob., 1.2. Kl., 1.2. Fag., Trgl., Harfe, 1. Viol., 2. Viol., Vla., Vlc., and Kb. The score features various dynamic markings such as *f*, *ff*, *mf*, *p*, and *pp*, along with performance instructions like *dim.*, *pizz.*, and *G-Saite*. A note at the bottom right states 'nicht eine Oktave höher!'.

마디44에서 B부분이 시작된다(악보7). 조성은 E♭ 장조로, 박자는 6/8박자로 바뀌면서 전원을 연상시키는 리듬 유형이 나온다. 현악기의 약음기가 빠지면서(Dämpfer ab) 시공간이 달라진 것을 음색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악보7)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44-47, 현

The musical score for strings (1. Viol., 2. Viol., Vla., Vlc., Kb.) is in E-flat major and 6/8 time. It features a 'Sanft bewegt' tempo and 'Dämpfer ab' (mute) instruction. The strings play a rhythmic pattern of eighth notes with a dynamic marking of 'pp' (pianissimo).

이는 화자가 결혼식이 행해지는 장소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이동했거나, 현실을 잊고 잠시 잠이 들어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며 “아!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Ach! Wie ist die Welt so schön!, 마디57-59)라고 노래한다(악보8).

악보8)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57-61, 성악

The musical score for voice (Singst.) is in E-flat major and 6/8 time. It features a 'Nicht schleppen' tempo and dynamic markings of 'f' (forte) and 'p' (piano). The lyrics are: "Ach! wie ist die Welt so schön! Zi-küth! Zi - küth! Zi - küth!"



마디55-56에서 클라리넷, 플루트가 앞에 나온 결혼식 장면이 나타난 A부분의 푸리안트 음형을 연주 하는데(악보10), 이는 화자가 현실 세계에서 완벽하게 분리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이 부분에서 이 음형은 ‘문명적 소리’로 분류 할 수 있다.

악보10)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55-56,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55 and 56. It is in 8/8 time and features woodwind instruments. The parts are: 1. Flute (1.Fl.), 2. Flute (2.Fl.), 1. Oboe (1.Ob.), 2. Oboe (2.Ob.), 1. Clarinet (1.Kl.), and 2. Clarinet (2.Kl.). The key signature has two flats. Dynamics include *p* (piano), *pp* (pianissimo), and *f* (forte). There are accents and slurs over various notes, particularly in the flute and clarinet parts.

마디64에서 연주 지시어 ‘다시 처음과 같이’(Wieder wie zuerst)와 함께 A’부분이 시작되고 화자는 현실로 돌아온다(악보11). A부분과 마찬가지로 현악기는 약음기(Dämpfer auf)를 사용한다. 화자는 “노래하지 마라!”(Singet nicht!)를 부르며 B부분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잠시나마 좋았던 순간을 부정한다(악보11).

악보11)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64-67, 총보

Wieder wie zuerst

Harfe *pp*

1. Viol. *pp* Dämpfer auf

2. Viol. *pp* Dämpfer auf

Vla. *pp* Dämpfer auf

Singst. Sin - get nicht! Blü - het nicht!

Vlc. *pp* Dämpfer auf

Kb. *pp* Dämpfer auf

A(마디1-43)와 A'(마디69-97) 부분에서 장조로 바뀌는 프레이즈가 두 번 있다. 마디22-28의(악보12) 가사 “나는 나의 작은방으로 간다”(Geh' ich in mein Kämmerlein)와 마디77-80의(악보13) 가사 “저녁에, 내가 자러 갈 때에”(Des Abends, wenn ich schlafen geh')를 노래하는 부분이다.

악보12)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22-28, 총보

Langsamer Schneller

1. Viol. *pp*

2. Viol. *pp*

Vla. *pp*

Singst. Geh' ich in mein Käm-mer - lein, dunk - les... Käm - mer - lein, get.

Vlc. *pp* pizz.

Kb. *pp* get. *f* pizz. *f*

악보13)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77-80, 총보

Langsamer

1. Viol. *pp*

2. Viol. *pp*

Vla. *pp*

Singst. A - bends, wenn ich schla - fen geh,

Vlc. *pp*

Kb. *pp*

이 부분에서 말러는 화자가 결혼식 음악이 들리지 않는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면서 현실 도피를 할 때 잠시나마 편안함을 느끼는 심경변화를 장조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기법은 작곡가들이 좋은 감정을 표현할 때 장조를, 나쁜 감정 표현할 때 단조를 사용한 관용적인 음악적 표현이다.

노래가 끝난 후 8마디의 긴 후주(마디89-96)가 이어진다. 후주는 A부분과 B부분 사이의 간주(마디38-43)<sup>30)</sup>처럼 음표의 음가가 늘어나면서 마지막에는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길게’(lang halten bis zum Erlöschen des Tones)라는 지시어가 있다(악보14). 말러는 점점 느려지는 긴 후주를 통해 화자의 절망하는 모습 또는 슬픔에 지쳐서 잠든 모습을 묘사한다.

30) 악보6)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38-43, 총보 참고.

악보14)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89-96, 총보

**Schneller**

*lang halten*  
bis zum Erlöschen  
des Tones.

제1곡에서 살펴본 말리의 ‘소리세계’를 정리해보겠다. 먼저 결혼식 분위기를 표현하는 푸리안트 음형은 상황에 따라 그 분류가 달라진다. 결혼식의 분위기를 만드는 음형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문명적 소리’이고, 이 음형이 실제 들리는 소리가 그대로 연주되어 민속 춤곡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난 부분은 ‘자연적 소리’이다. 연인의 결혼식을 우울하게 느끼는 화자가 이 음형을 노래하는 것은 감정을 표현한 ‘예술적 소리’이다. B부분에서 고통으로부터

도피하여 꿈의 세계로 잠입한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과, 오케스트라가 새소리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연적 소리’이다. 말러가 화자의 슬픈 심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관용적인 수사학적 기법을 사용한 것은 ‘예술적 소리’로 분류하였다.

## 2.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Ging heut' Morgen über's Feld)

[가사]

Ging heut' Morgen über's Feld,  
Tau noch auf den Gräsern hing;  
Sprach zu mir der lust'ge Fink:  
"Ei du! Gelt? Guten Morgen!  
Ei gelt? Du!  
Wird's nicht eine schöne Welt?  
Schöne Welt?  
Zink! Zink! Schön und flink!  
Wie mir doch die Welt gefällt!"

Auch die Glockenblum' am Feld  
Hat mir lustig, guter Ding',  
Mit den Glöckchen,  
klinge, kling, klinge, kling,  
ihren Morgengruß geschellt:  
„Wird's nicht eine schöne Welt?  
Kling! Kling! Kling! Kling!  
Schönes Ding!  
Wie mir doch die Welt gefällt!”  
Heiah!

Und da fing im Sonnenschein  
gleich die Welt zu funkeln an;  
alles, alles Ton und Farbe gewann!  
Im Sonnenschein!  
Blum' und Vogel, groß und Klein!  
„Guten Tag! Guten Tag!  
Ist's nicht eine schöne Welt?  
Ei du! Gelt? Ei du! Gelt?  
Schöne Welt!”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풀 위에 이슬이 아직 맺혀있었다.  
즐거운 방울새가 나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니? 좋은 아침!  
그렇지 않니? 너!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름다운 세상?  
쩍! 쩍! 아름답고 빛이나!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지!”

들판위의 방울꽃도  
내게는 즐겁고 좋은 것,  
종을 가지고 소리를 낸다,  
클링, 클링, 클링, 클링,  
그들의 아침인사가 울린다: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지 않아?  
울려라! 울려라! 울려라! 울려라!  
아름다운 것!  
얼마나 이 세상이 내 마음에 드는지!”  
하이아!

그리고 곧 햇빛을 받으며  
세상이 빛나기 시작했다:  
모든, 모든 음과 색이 살아났다!  
햇빛 안에서!  
꽃과 새, 크고 작은 것!  
“안녕! 좋은 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지 않아?  
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름다운 세상!”

Nun fängt auch mein Glück wohl an?!	이제 나의 행복도 시작될까?!
Nein! nein! Das ich mein',	아니! 아니! 내 생각에는,
mir nimmer, nimmer blühen kann!	절대, 절대로 피어나지 못할 것이다!

표4) 제2곡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의 분석개요

구조	바르형식(Bar Form)			
	A(마디1~29)	A'(마디30~61)	B(마디62~103)	Coda(마디104~127)
박자	2/2			
조성	D장조	D장조 - F#장조	B장조 - F#장조	F#장조
빠르기말	편안한 움직임으로 (In gemächlicher Bewegung)		느리게(Langsam)- 더욱 느리게(Noch langsamer)- 느려지며(Zurückhaltend)- 처음과 같이(Tempo I)- 질질 끌지 않게(Nicht schleppen)	
주요내용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함			아름다운 세상과 대조되는 자신의 상황을 한탄함
주요악기 연주기법	피콜로, 플룻 옥타브 유니즌	바이올린 스피카토		하프 현악기 약음기사용

제2곡에서 화자가 들판을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장면은 ‘자연적 소리’가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말리는 자연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D장조를 선택하였는데, D장조는 전통적 조성 표현방식에서 F장조와 함께 전원(Idyll)을 나타내는 조성이다. 요하네스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가 오스트리아 뢰트샤흐(Pörtlach)에 있는 별장에서 머물며 아름다운 자연을 그린 《교향곡 2번》(Symphony No.2, Op.73)을 위해 선택한 조성

도 D장조였으며, 한스 로트(Hans Rott, 1858~1884)도 《피아노를 위한 전원 49번》(Idylle für Klavier No.49)에서 D장조를 선택하였다. 17세기에 ‘조성학’ (Tonartencharakteristik)이 성립된 이후 많은 작곡가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조성선택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말러 역시 제2곡에서 인간이 보편적으로 아름답게 느끼는 자연을 표현하기 위하여 D장조를 선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악보15)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1-4, 총보

**In gemächlicher Bewegung**

The musical score is for the first four measures of the piece. It features the following parts and dynamics:

- Piccolo:** Plays a rhythmic pattern of eighth notes, starting with a *p* dynamic.
- 2 Flöten:** Play a rhythmic pattern of eighth notes, starting with a *p* dynamic.
- Harfe:** Remains silent until measure 3, where it begins a melodic line with a *p* dynamic, reaching a *f* dynamic in measure 4.
- 1. Violinen:** Remains silent until measure 4, where it plays a short melodic phrase with a *pp* dynamic.
- 2. Violinen:** Remains silent until measure 4, where it plays a chord with a *pizz.* (pizzicato) marking and a *p* dynamic.
- Violen:** Remains silent until measure 4, where it plays a chord with a *pizz.* marking and a *p* dynamic.
- Singstimme:** Enters in measure 3 with the lyrics: "Ging heut' mor-gen ü-ber's Feld, Tau noch".
- Violoncelli:** Remains silent until measure 4, where it plays a chord with a *pizz.* marking and a *p* dynamic.
- Kontrabässe:** Remains silent until measure 4, where it plays a chord with a *pizz.* marking and a *p* dynamic.

곡이 시작되면서(마디1-2) 피콜로와 플루트는 옥타브 유니즌으로 D장조의 도미난트 음인 A음을 연주한다(악보15). 전주에서 단순하게 반복되는 4분음표 이후 마디4의 첫 박에서 해결되는 으뜸화음은 경쾌하고 편안한 자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새소리 등과 같이 자연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모티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점은 말러 음악이 갖는 특별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말러의 ‘소리세계’ 중 ‘자연적 소리’이다. 가사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Ging heut’ morgen über’s Feld)에 나오는 4분음표들은 들판을 걷고 있는 화자의 경쾌한 발걸음을 나타낸다.

악보16)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11-12, 성악, 콘트라베이스

Singst. Gu - ten Mor - gen! Ei, gelt? Du!

Kb. *pp*

마디11부터 등장하는 콘트라베이스의 비어있는 5도는 자연을 의미하는 ‘자연적 소리’이다(악보16).

마디15-16에서 새가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Wird’s nicht eine schöne Welt?)라고 질문하면 마디17부터 여기에 화답하듯 바이올린을 중심으로 한 유려한 선율이 펼쳐진다(악보17).

악보17)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14-22, 총보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measures 14-22) includes parts for 1. Viol., 2. Viol., Vla., Singst., Vlc., and Kb. The key signature has two sharps (F# and C#), and the time signature is common time (C). The vocal line (Singst.) has the lyrics: "Wird's nicht ei - ne schö - ne Welt? schö - ne Welt? \_". The second system (measures 23-26) includes parts for 1. Viol., 2. Viol., Vla., Singst., Vlc., and Kb. The vocal line (Singst.) has the lyrics: "Zink! Zink! Schön und flink!". The score includes various dynamic markings such as *cresc.*, *f*, *pizz.*, *p*, *pp*, and *ppp*.

마디25-27에서 빈 왈츠에 자주 쓰이는 모티브(악보19, 20)가 사용되었다(악보18). 이를 통해 오스트리아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말러의 성장적 배경을 알 수 있다. 에게브레히트가 춤음악이 그대로 나타난 것을 ‘자연적 소리’로 분류한 것에 따라서 본 연구자도 이 부분을 ‘자연적 소리’로 보았다.

악보18)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25-26, 현

악보19) 요한 슈트라우스 《Wiener Blut》 중 <Walzer I> 현

악보20) 라벨 《La Valse》 31) 중 현

31)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이 빈 왈츠를 소재로 작곡한 작품이다.

마디23-26에서 바이올린, 비올라가 스피카토로, 첼로는 피치카토로 가벼운 느낌으로 경쾌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마디27-30에는 8분음표, 셋잇단음표, 16분음표 순서로 음가가 짧아지면서 긍정적인 느낌을 준다(악보21). 이는 제1곡에서 화자의 슬프고 우울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음가가 줄어드는 것과 대조되는 음악적 표현이다.<sup>32)</sup>

악보21) <오늘 아침 들관 위를 걸었다>, 마디27-30, 바이올린, 비올라

1. Viol. *f* *fff* *mf* *p*  
 2. Viol. *f* *fff* *mf* *p*  
 Vla. *f* *fff* *mf* *pp*

ohne Nachschl.

마디71-73의 제2바이올린은 가사 “반짝이는”(funkeln)을 음형적으로 묘사한 ‘자연적 소리’이다.

악보22) <오늘 아침 들관 위를 걸었다>, 마디71-73, 바이올린, 성악

2. Viol. *ppp*  
 Singst. Gleich die Welt zu fun - keln an;

32) 악보6) <나의 연인이 결혼 하는 날>, 마디38-43, 총보 참고.

마디85에서 화자는 가사 “안녕!”(Guten Tag!)을 노래하면서 오후인사를 하는데 앞부분의 가사 “Guten Morgen!” 이후 시간이 경과했음을 알 수 있다.

악보23)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85-88, 성악

Singst.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던 화자는 마디99-102에서 연주 지시어 매우 느려지며(molto ritenuto)와 함께 점점 시선이 화자 자신에게로 옮겨진다.

악보24)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99-105, 총보



1.2. Fl. *molto ritenuto* **Langsam**  
 1. Ob.  
 1.2. Kl. 1. *ppp*  
 1. Fag. *pp*  
 Harfe *p* *f*  
 Singst. *leise* *[>]*  
 Vlc. *pizz.*  
 Kb. *pp*

Nun fängt auch mein Glück wohl an?!

여기서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했던 지금까지의 ‘자연적 소리’는 ‘예술적 소리’의 세계로 바뀐다. 마디103에서 시적화자는 이러한 도취적인 아름다움에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며 느려진(Langsam) 템포로 “이제 나에게도 행복이 올까?”(Nun fängt auch mein Glück wohl an?)라며 자문한다(악보24). 곡 시작 부분(마디2-4)<sup>33)</sup>에 나왔던 선율의 끝 음을 2도 상행하지 않고 2도 하행함으로써 불안해진 마음을 표현한다. 이어서 시적 화자는 ‘더 느려진’(Noch langsamer) 템포로 “아니야!”(Nein!, 마디113)라고 자신의 행복이 절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며 절망한다(악보25).

악보25) <오늘 아침 들관 위를 걸었다>, 마디115-118, 총보

**Noch langsamer**

1.2. Fl. *p* deutlich

1. Kl. *ppp*

3.4. Horn mit Dämpfer *pp*

Pk.

Harfe *mf*

1. Viol. mit Dämpfer *pp* *espressivo*

Singst. *leise, aber mit Empfindung*  
Nein! Nein! Das ich mein,

Vlc. mit Dämpfer *pp*

33) 악보15) <오늘 아침 들관 위를 걸었다>, 마디1-4, 총보 참고.

이 부분에서 하프가 느린 셋잇단음표의 음형을 메조 포르테로 연주하는데 (악보25), 이 음형은 제3곡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에서 화자의 고통스런 심정을 노래하는 부분에서도 나타난다.<sup>34)</sup> 이 음형은 말러가 화자의 불행한 현실을 깨닫게 하는 매개체로 사용한 ‘예술적 소리’로 볼 수 있다. 말러는 이 같은 방법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대조적인 화자의 불행한 현실을 나타내었다. 이 부분부터 곡의 끝까지 현악기는 약음기(mit Dämpfer)를 사용함으로(악보25) 확실하게 앞부분과의 소리적인 대조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말러가 제1곡에서 연인의 결혼식 장면을 보며 우울한 화자의 기분을 노래하는 장면을 표현할 때 사용한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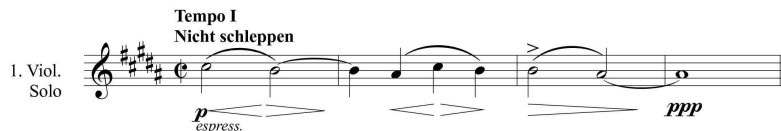
마디119-122에서 화자는 가사 “절대, 절대로 피어나지 못할 것이다”(mir nimmer, nimmer blühen kann!)를 C#<sub>5</sub>음에서 G#<sub>5</sub>으로 5도 상행 후 옥타브 아래 G#<sub>4</sub>음까지 하행하며 절망하는 심정을 노래하는데(악보26), 이는 ‘예술적 소리’로 볼 수 있다.

악보26)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119-122, 성악



후주(마디124-127)에서 바이올린 솔로는 화자의 마음을 대변하면서도 위로하는 듯 2도로 이루어진 선율로 마무리된다.

악보27) <오늘 아침 들판 위를 걸었다>, 마디124-127, 솔로 바이올린



34) 악보61)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45-51, 총보 참고.

제2곡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가사와 어우러져 말러의 ‘소리세계’ 중 ‘자연적 소리’들이 나타나있다. 화자가 아름다운 자연과 대조적인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절망하는 감정은 ‘예술적 소리’로 표현되었다.

### 3.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Ich hab' ein glühend Messer)

[가사]

Ich hab' ein glühend Messer,  
ein Messer in meiner Brust,  
o weh! O weh!  
Das schneid't so tief!  
In jede Freud' und jede Lust,  
so tief! So tief!  
Es schneid't so weh und tief!  
Ach, was ist das für ein böser Gast!  
Ach, was ist das für ein böser Gast!  
Nimmer hält er Ruh',  
nimmer hält er Rast,

Nicht bei Tag, nicht bei Nacht,  
wenn ich schlief!  
O weh! O weh!  
O weh!

Wenn ich den Himmel seh',  
seh' ich zwei blaue Augen steh'n!  
O weh! O weh!  
Wenn ich im gelben Felde geh',  
seh' ich von fern das blonde Haar  
im Winde weh'n!  
O weh! O weh!  
Wenn ich aus dem Traum auffahr'  
und höre klingen ihr silbern Lachen,  
o weh! O weh!

Ich wollt' ich läg'  
auf der Schwarzen Bahr',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나의 가슴 속의 칼,  
아 아프다! 아 아프다!  
깊숙하게 베었다!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아주 깊게! 아주 깊게!  
아주 아프고 깊게 베었다!  
아, 얼마나 나쁜 손님인지!  
아, 얼마나 나쁜 손님인지!  
평안을 절대 가질 수 없다,  
휴식을 절대 가질 수 없다.

낮에도, 밤에도,  
나는 잘 수 없다.  
아 아프다! 아 아프다!  
아 아프다!

내가 하늘을 볼 때에,  
두 개의 푸른 눈을 본다!  
아 아프다! 아 아프다!  
내가 황금빛 들판을 갈 때에,  
저 멀리 바람에 휘날리는  
금빛 머리를 본다!  
아 아프다! 아 아프다!  
내가 꿈에서 깨어날 때에,  
그녀의 은빛 웃음소리를 듣는다.  
아 아프다! 아 아프다!

나는 원했다,  
검은 관에 눕기를,

könnst' nimmer,  
nimmer die Augen aufmachen!

절대로  
눈을 뜰 수 없도록!

표5) 제3곡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의 분석개요

구조	통절형식		
	A(마디1~44)	B(마디45~67)	C(마디68~80)
박자	9/8		3/4 - 4/4
조성	d단조	G장조 - e단조	e b 단조
빠르기말	격정적인(Stürmisch) 거친(wild)	더욱 느리게 (Noch langsamer) 조금 급하게 (Etwas drängend) 앞으로(Vorwärts) 매우 급하게 (Sehr drängend)	다시 주저하며 (Wiederzurückhaltend)
주요내용	그녀를 잊지 못하는 괴로움을 표현		죽고 싶은 심정을 노래
주요악기 연주기법	트럼펫, 트럼본 (ff > p)	현악기 트레몰로	큰북, 탐탐

제3곡은 화자가 이별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심정이 가슴에 불타는 칼을 품은 듯 괴롭다는 내용을 노래한다. 말러의 ‘소리세계’ 중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비스키르헨은 ‘예술적 소리’(Kunstlaute)로 분류하였는데, 이 곡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셈여림의 변화와 조성 변화, 2도로 신음하는 유형, 반음계, 불협화음 등이 이에 해당한다.<sup>35)</sup>

35) Wißkirchen, *Wort-Ton-Analyse*, 164.

전주(마디1-4)는 포르티시모 투티(Tutti)로 감7화음을 반복해서 시작하며 긴장감 있게 연주한다.

악보28)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1-4, 총보

**Stürmisch, wild**

The musical score is for the piece 'Stürmisch, wild' and covers measures 1 through 4. It is written for a full orchestra. The tempo and mood are indicated as 'Stürmisch, wild'. The score includes the following parts and markings:

- 3 Flöten:** Markings include 'zu 3', 'ff', 'f', 'mf', and 'p'.
- 2 Oboen:** Markings include 'zu 2', 'ff', 'f', 'mf', and 'p'.
- 3 Klarinetten in B:** Markings include 'zu 3', 'ff', 'f', 'mf', and 'p'.
- 2 Fagotte:** Markings include 'zu 2', 'ff', 'f', 'mf', and 'p'.
- 4 Hörner in F:** Markings include 'zu 2', 'ff', 'f', 'mf', and 'p'.
- 2 Trompeten in F:** Markings include 'zu 2', 'mit Dämpfer', 'ff', 'p', 'fp', 'mfp', and 'p'.
- 3 Posaunen:** Markings include 'ff', 'p', 'fp', 'mfp', and 'p'.
- Pauken:** Markings include 'ff', 'f', 'mf', and 'p'.
- 1. Violinen:** Markings include 'ff'.
- 2. Violinen:** Markings include 'pizz.', 'ff', 'f', 'mf', and 'p'.
- Violen:** Markings include 'pizz.', 'ff', 'f', 'mf', and 'p'.
- Violoncelli:** Markings include 'pizz.', 'ff', 'f', 'mf', and 'p'.
- Kontrabässe:** Markings include 'pizz.', 'ff', 'f', 'mf', and 'p'.

마디5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셋잇단음표 음형은 화자의 끊임없는 고통을 표현하는데(악보29), 마디24에 이르러(악보30) 가사 “평안을 절대 가질 수

없다”(Nimmer hält er Ruh)에서는 앞서 나오던 셋잇단음표보다 음가가 짧은 16분음표를 사용하고 팀파니의 트레몰로가 더해져 괴로움을 더욱 강하게 나타냈다.

악보29)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5-8, 목관, 금관, 바이올린, 비올라

Musical score for measures 5-8, featuring woodwinds, brass, and strings. The score includes parts for 1.2. Ob., 1.2. Kl., 1.2. Fag., 1.2. Horn, 3.4. Horn, 1. Viol., 2. Viol., and Vla. The woodwinds and brass play staccato chords, while the strings play a rhythmic pattern. Dynamics range from *p* to *ff*. Performance instructions include *p molto cresc.*, *gestopft*, and *offen*.

악보30)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20-23, 팀파니, 현, 성악

Musical score for measures 20-23, featuring timpani, strings, and vocal. The score includes parts for Pk., 1. Viol., 2. Viol., Vla., Singst., Vlc., and Kb. The strings play a rhythmic pattern with various bowing techniques like *spring Bogen* and *trem.*. The vocal part has lyrics: "Ach, was ist das für ein bö - ser Gast! Nim-mer hält er Ruh', nim-mer hält er Rast!". Dynamics range from *p* to *ff*. Performance instructions include *G-Saite get.*, *spring Bogen*, and *tr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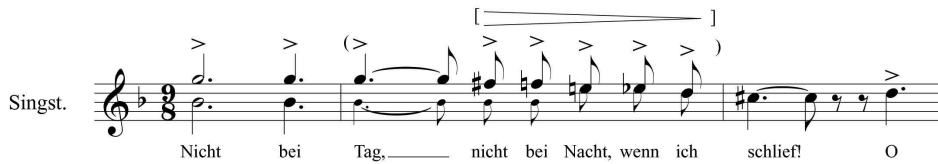
가사 “아, 아프다” (O Weh)는 나올 때 마다 ‘예술적 소리’의 대표적 표현으로 고통을 나타내는 수사학적으로 신음하는 음형인 하행하는 2도 선율로 표현되었다.

악보31)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9-10, 성악



마디26-27의 포르티시모와 하행하는 반음계로 가사 “낮에도, 밤에도, 나는 잘 수 없다”(Nicht bei Tag, noch bei Nacht, wenn ich schliefe!)의 괴로운 심정을 표현하는 것도 ‘예술적 소리’로 분류 될 수 있다.

악보32)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26-28, 성악



전주의 늘어난 모양의 간주(마디33-39)가 삽입된 뒤에 ‘느려지는’(ritenuto)의 연주 지시어와 함께 3마디동안 길게 “아, 아프다”(O Weh)라고 길게 신음하고 ‘더 느려지는’(Noch langsamer)부분으로 이어진다.

악보33)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40-42, 성악



마디46부터 가사 “내가 하늘을 볼 때에”(Wenn ich den Himmel seh’)를 부르며 셋잇단음표 음형이 멈추며 잠시 쉴 수 있는 듯하지만(악보34), 하늘에 푸른색을 보며 화자는 연인의 푸른 눈을 떠올리게 된다. 이때 마디50에서 하프가 셋잇단음표 음형을 다시 연주하고(악보34) 화자는 곧바로 가사 “아 아프다”(O, Weh!)를 신음하는 유형인 반응으로 하행하는 선율로 노래한다.

악보34)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45-51, 총보

**Noch langsamer**

The musical score is for measures 45-51, marked "Noch langsamer". It features the following instruments and parts:

- Picc.**: Piccolo, starting with a melodic line in measure 50.
- 1.2. Fl.**: Flutes, playing a triplet of eighth notes in measure 45.
- 1.2. Fag.**: Clarinet, playing a melodic line in measure 50.
- 1.2. Horn**: Horns, playing a melodic line in measure 45 with "mit Dämpfer" (with mutes).
- Harfe**: Harp, playing a rhythmic accompaniment of eighth notes.
- 1. Viol.**: Violin I, playing a melodic line in measure 50.
- 2. Viol.**: Violin II, playing a melodic line in measure 45 with "mit Dämpfer" and "get." (grace notes).
- Singst.**: Singer, with lyrics: "Wenn ich in den Him-mel seh', seh' ich zweblau-e Au-gen steh'n! O weh! O Weh!".
- Vlc.**: Viola, playing a melodic line in measure 50 with "mit Dämpfer".
- Kb.**: Double Bass, playing a rhythmic accompaniment in measure 50 with "pizz." (pizzicato).

Dynamic markings include *pp*, *ppp*, and *p*. Performance instructions include "mit Dämpfer" and "pizz.".

마디50-51에서 피콜로와 제1바이올린이 마디22-23에서 화자가 가사 “평안을 절대 가질 수 없다”(Nimmer hält er Ruh)의 선율을 연주하며<sup>36)</sup> 고통을 노래하는 심정을 대변한다(악보34).

마디60부터 템포가 빨라지고(Vorwärts) 마디62에서 더욱 빨라지면서(Sehr drängend) 감정은 절정으로 치닫고 꿈에서 깨어날 때에 “그녀의 은빛 웃음 소리”(ihr silbern Lachen, 마디64)를 듣는다고 절규한다.

악보35)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62-64, 성악

**Sehr drängend**

Singst. 

und hö-re klin-gen ihr sil-bern La-chen.

가사 “은빛웃음”은 이 곡에 단 한번 나오는 음형인 4개의 8분음표를 악센트로 강조하여 노래한다(악보35). 이 부분에서 웃음을 은빛으로 표현한 것은 결국 화자를 괴롭게 하는 칼이 그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디67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음계로 상행하면서 마디68의 첫 박까지 극적으로 커진다(악보36). 가사 “나는 원했다, 검은 관에 눕기를”(Ich wollt' ich läg' auf der Schwarzen Bahr')을 B $\flat$ <sub>4</sub>음에서 G $\flat$ <sub>5</sub>으로 상행한 뒤(68) 처음 B $\flat$ <sub>4</sub>보다 옥타브 아래의 B $\flat$ <sub>3</sub>까지 하행하며 노래하는데, 이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심정을 표현한 ‘예술적 소리’이다.

36) 악보30)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20-23 참고.

악보36)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 마디67-74, 총보

(a tempo) Ritenuato

1.2. Fl. *1.* *verrischend*  
*pp*

1.2. Ob. *verrischend*  
*pp*

1.2. Kl. *verrischend*  
*pp*

1.2. Fag. *verrischend*  
*pp*

1.2. Horn *gestupft*  
*fp*

3.4. Horn *gestupft*  
*fp*

1.2. Trp. *mit Dämpfer*  
*pp*

1.2.3. Pos. *1.*  
*f*

1.2. Viol. *glissando*  
*ff*

1.2. Viola *mit Dämpfer*  
*pp*

Sings. *ich woll' ich lig' auf der schwarzen Bah', kien' nim-met, nim - mer die Au-gen auf - ma-chen!*  
*ppp*

Vcl. *pizz.*  
*ppp*

Kb. *arco*  
*pp*



이렇게 곡 끝 부분에 타악기가 등장하는 방식은 굶주린 삶을 이기지 못해  
 아이가 죽는다는 내용이 담긴 말러의 가곡 <지상의 삶>(Das irdische  
 Leben)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악보38). 이 곡의 마지막 가사 “아이는 관 위  
 에 누워있었다”(lag das Kind auf der Totenbahr!)에 이어지는 후주는 pp로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심벌즈(Piatti)가 울리고 곡이 끝난다.

악보38) <지상의 삶>, 마디129-136, 총보

1.2. Kl. *mf* *p* 1.

1.2. Fag. *f* *mf* *p*

1.2.3. Horn

Piatti mit Schwammschlägel con bacchette di spugna *pp*

1. Viol.

2. Viol.

Vla. *f* *mf* *p*

Vlc. *f* *mf* *mf*

Kb. *mf* pizz.

이러한 말러의 음악적 표현에 대해 플로로스(Constantin Floros, 1930 ~ )는 그의 책 『구스타프 말러Ⅱ』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말러는 몇몇의 가곡<sup>37)</sup>과 몇 개의 교향곡 악장<sup>38)</sup>을 탐탐이나 심벌즈로 끝나게 했다. 두 개의 가곡의 가사 “나는 검은 관에 늪기를 원했다”, “아이는 관 위에 누워있었다”는 곡 끝에 탐탐과 심벌즈가 울리는 것이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sup>39)</sup>

두 곡 모두 마지막 의 화성은 E♭ 단조 인데, 가곡 ‘지상의 삶’은 원래 조성이지만,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제3곡인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는 시작 할 때 D단조에서 전조를 거쳐 끝에는 E♭ 단조로 옮겨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성과 탐탐소리는 화자가 연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비극적 현실, 그리고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는 운명을 나타낸 말러가 만들어 낸 ‘예술적 소리’로 볼 수 있다.

---

37)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Ich hab' ein glühend Messer), <지상의 삶>(Das irdische Leben), <물고기에게 설교하는 성 안토니우스>(Des Antonius von Padua Fischpredigt).

38) 교향곡 2번의 스케르쑈(Scherzo), 교향곡 10번의 연옥(Purgatorio).

39) Constantin Floros, *Gustav Mahler II* (Kassel: Breitkopf & Härtel Wiesbaden, 1977), 311.

#### 4. 두 개의 푸른 눈(Die zwei blauen Augen)

[가사]

Die zwei blauen Augen von meinem Schatz,  
die haben mich in die weite Welt geschickt.  
Da mußst' ich Abschied nehmen  
vom allerliebsten Platz!  
O Augen blau,  
warum habt ihr mich angeblickt?  
Nun hab' ich ewig Leid und Grämen!

Ich bin ausgegangen in stiller Nacht,  
in stiller Nacht  
wohl über die dunkle Heide.

Hat mir niemand Ade gesagt!  
Ade! Ade! Ade!  
Mein Gesell' war Lieb und Leide!

Auf der Straße steht ein Lindenbaum,  
da hab' ich zum ersten Mal  
im Schlaf geruht!  
Unter dem Lindenbaum!

Der hat seine Blüten über mich geschneit,  
Da wußt' ich nicht,  
wie das Leben tut,  
war alles, alles wieder gut!  
Alles! Alles!  
Lieb und Leid und Welt, und Traum!

나의 연인의 두 개의 푸른 눈이  
나를 먼 세상으로 보냈다.  
나는 사랑하는 장소로 부터  
이별 해야만 했다!  
오 푸른 눈,  
왜 나를 바라봤는가?  
이제 영원한 고통과 원망뿐이다!

나는 고요한 밤에,  
고요한 밤에  
어두운 별판으로 나갔다.

그 누구도 나에게 작별인사를 하  
지 않았다. 안녕! 안녕! 안녕!  
나의 젊음은 사랑과 고통 이었다!

길 위에 보리수가 서 있다.  
거기서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다!  
보리수 아래!

앞이 내 위로 훑날렸다.  
그 때 나는 몰랐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다시 좋았다.  
모든 것! 모든 것!  
사랑과 고통 그리고 세상과 꿈!

표6) 제4곡 <두 개의 푸른 눈>의 분석개요

구조	Bar Form (바르형식)		
	A(마디1~16)	A'(마디17~37)	B(마디38~67)
박자	4/4 (5/4 삽입)	4/4	
조성	e단조	C장조 / c단조	F장조 / f단조
빠르기말	행진곡 풍으로 (Alla Marcia) 비밀스럽게 우울한 표현으로 (Mit geheimnisvoll schwermütigem Ausdruck) 감상적이지 않게 (Ohne Sentimentalität)		
		엄격한 박자를 가지고 (Streng im Takt) 질질 끌지 않게 (Nicht schleppen)	
주요내용	사랑과 고통을 경험하게 했던 세상과 작별하는 내용		보리수 아래에 잠들며 체념하는 내용
주요악기 연주기법	목관악기 부정 리듬 (장송행진곡 리듬)	하프와 팀파니의 걷는 음형	하프 셋잇단음표 바이올린 3중주

이 연가곡의 마지막 곡인 제4곡은 화자가 세상에게 작별을 고하는 내용이다. 이 곡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명적 소리는 ‘장송행진곡’ (Marcia funebre)음형인데, 이것은 장례의식에서 군인들이 운구를 할 때 쓰였던 음악이다. 말러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글라우 지역은 군인의 주둔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는 군악대의 행진곡과 더불어 장송행진곡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지휘자 아바도(Claudio Abbado, 1933~2014)가

샤우플러(Wolfgang Schaufler, 1963~ )와의 인터뷰에서 빈에서 본 장례 행렬이 말리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렇다. 그건(빈에서 본 장례행렬)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었다. 묘지로 이어지는 렌베크(Rennweg)라는 거리였는데, 장례 행렬이 악대와 함께 그곳을 지나갔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었고, 상여가 있었고, 모든 것이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말리 음악이 함께하는 행렬 같았다. 실로 장중한 행렬이었다! (생략) 말리도 분명히 이런 장례 행렬을 봤을 것이다.”<sup>40)</sup>

죽음과 가까웠던 말리의 삶에 장례 행렬과 장송곡은 그의 ‘문명적 소리’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음악과 ‘소리세계’를 이해하게 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전주 없이 시작하는 제4곡은 처음부터 마디16까지 장송행진곡 리듬에 맞춰 세상과 작별하는 내용의 가사를 노래한다(악보39). “나의 연인의 두 개의 푸른 눈이 나를 먼 세상으로 보냈다”(Die zwei blauen Augen von meinem Schatz, die haben mich in die weite Welt geschickt)라는 가사의 내용으로 화자가 연인, 그리고 세상과의 작별이 본인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곡 처음의 연주지시어 “감상적이지 않게”(Ohne Sentimentalität)를 통하여 화자가 운명을 받아들이고 체념에 이르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

40) Schaufler, 『말리를 찾아서』, 24.

악보39) <두 개의 푸른 눈>, 마디1-4, 총보

[Alla Marcia]  
Mit geheimnisvoll schwermütigem Ausdruck. Ohne Sentimentalität

1. Flöte  
2.3. Flöten  
Englisch Horn  
2 Klarinetten in B  
Baßklarinete in B  
Harfe  
1. Violinen  
Violen  
Singstimme

Die zwei blau - en Au - gen von mei - nem Schatz, die ha - ben mich in die wei - te Welt ge - schickt. Da

마디17부터 20마디동안 콘트라베이스, 하프, 팀파니에서 4분음표의 오스티나토가 있는데, 이는 가사 “나는 밖으로 나갔다”(Ich bin ausgegangen)의 걸음걸이를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걸음의 음형이 계속되는 동안에 다른 악기들은 장조와 단조의 화성이 번갈아 들리게 연주한다(악보40).

악보40) <두 개의 푸른 눈>, 마디17-20, 총보

[a tempo]

1.2. Fl. *pp*

Engl. Horn *pp*

1.2.3. Kl. *pp*

1.2.4. Horn *p* *pp*

Pk. *ppp*

Harfe *p*

1. Viol. mit Dämpfer 3fach get. pizz.

Vla. mit Dämpfer *pp* get.

Singst. Ich bin aus - ge - gan - gen in stil - ler Nacht. in - stil - ler Nacht wohl

Vlc. mit Dämpfer *pp* get. *sempre pp*

Kb. *p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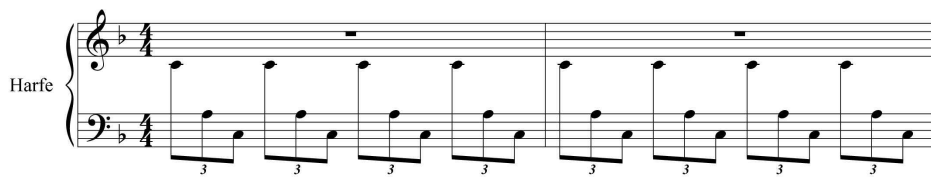
C장조 c단조

말러의 이러한 음악적 표현을 아들러(Guido Adler, 1855~1941)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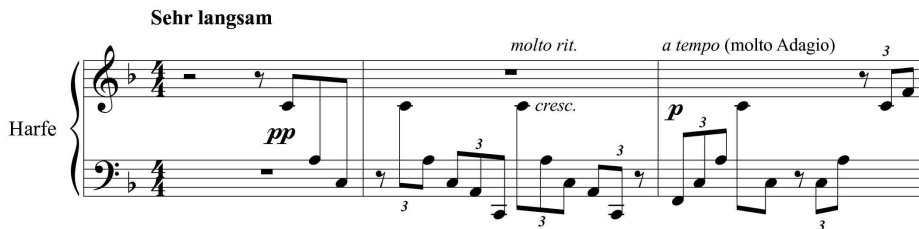


마디39-40에서 하프의 셋잇단음표(악보43)는 말러의 《교향곡 5번》의 4악장 <아다지에토>(Adagietto)의 첫 하프 모티브(악보44)와 같다. 교향곡 5번 1악장이 장송행진곡이고 4악장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아름다운 선율이 있는 것이 이 연가곡의 제4곡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악보43) <두 개의 푸른 눈>, 마디39-40, 하프



악보44)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토>, 마디26-28. 하프



이 곡에 등장하는 ‘보리수’가 갖는 의미에 대해 슈베르트(Franz Schubert, 1797~1828)의 연가곡 《겨울나그네》(Winterreise) 중 다섯 번째 가곡인 <보리수>(Der Lindenbaum)와 비교하여 고찰해 볼 수 있다. 슈베르트의 ‘보리수’도 전주에서 보리수 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셋잇단음표로 표현되었다(악보45).

악보45) 슈베르트 <보리수>, 마디1-12

**Mäßig**

김미영은 슈베르트의 ‘보리수’가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그것은 행복했던, 하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꿈이며 불행한 방랑자가 참을 수 없는 아픔으로부터 도피하는 지난날에 대한 한갓 환상이다. 불행한 방랑자는 과거의 행복했던 시간, 저 여름날 그가 바람결에 소리 내며 흔들리는 나뭇가지 아래서 사랑을 꿈꾸었던 순간을 회상한다. 보리수는 여기서 차가운 겨울과 대비되는 전원적이고 “더 좋은 세상”을 상징한다. 하지만 이것은 잃어버린 과거이다. 보리수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는 정신적 안식과 죽음에의 동경과도 연결되는 것이다..”<sup>42)</sup>

42) 김미영, “F. 슈베르트와 리트,” 『서양음악학』 (서울: 한국서양음악학회, 2001), 207-231.

위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4곡에서 연인의 이별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 안식을 찾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 말러는 《겨울나그네》에서 죽음의 동경과 연결되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보리수’를 음악적으로 인용했다고 볼 수 있다. ‘보리수’를 음악적으로 나타낸 음형들은 화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자연적 소리’이면서, 동시에 말러가 슈베르트의 죽음을 동경하는 의미를 인용한 ‘예술적 소리’이다.

마디61부터 가사 “사랑과 고통 그리고 세상과 꿈!”(Lieb und Leid und Welt, und Traum!)을 노래하고, 마지막에 화자의 죽음을 상징하듯 장송 행진곡 음형을 두 번 반복 한 후 f단조로 끝난다.

악보46) <두 개의 푸른 눈>, 마디60-67, 총보

The musical score is for the section 'Two Blue Eyes' (마디 60-67) from the opera 'Winterreise'. It is a full orchestral score with vocal parts. The score is in 4/4 time and B-flat major. The instruments and parts shown are:

- 1.2. Fl. (Flutes): Part 1 starts at measure 60, Part 2 starts at measure 61. Dynamics include *ppp* and *pppp*. A *poco rit.* marking is present at the end of the section.
- 3. Fl. (Flute): Part 3 starts at measure 61. Dynamics include *ppp* and *pppp*.
- 1. Kl. (Clarinet): Part 1 starts at measure 60. Dynamics include *pp* and *dim.*
- Bkl. (Bass Clarinet): Part 1 starts at measure 60. Dynamics include *pp* and *dim.*
- 1.2. Horn (Horns): Part 1 starts at measure 60, Part 2 starts at measure 61. Dynamics include *pp*.
- Harfe (Harp): Part 1 starts at measure 60, Part 2 starts at measure 61. Dynamics include *ppp* and *pppp*.
- Singst. (Singer): Part 1 starts at measure 60. Dynamics include *ppp*. The lyrics are: "Lieb' und Leid, und Welt, und Traum!".
- Kb. (Cello/Double Bass): Part 1 starts at measure 60, Part 2 starts at measure 61. Dynamics include *ppp*. A *pizz.* marking is present at the end of the section.

세상과 작별을 고하는 제4곡에서는 체념하는 화자의 기분을 나타내기 위해 ‘문명적 소리’의 대표적 표현인 장송행진곡 리듬이 사용되었다. 또한 ‘화자가 보리수 아래 편히 잠들었다’는 부분에서 나오는 하프의 셋잇단음표 음형은 ‘자연적 소리’이고, 동시에 슈베르트의 보리수를 음악적으로 인용한 ‘예술적 소리’이다. 이 곡에서 나타난 ‘예술적 소리’는 가사 “안녕”(Ade)에 나타난 고통을 표현하는 음악적 음형인 감5도로 하행하는 반음계와 가사 “사랑과 고통”을 각각 장·단조로 대조적 표현을 한 것이 있다.

## V. 결론

본 논문은 말러의 ‘소리세계’를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 말러의 삶과 그 삶을 통해 형성된 ‘소리세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말러의 ‘소리세계’가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에 나타난 ‘소리세계’를 비스키르헨이 정리한 이론에 따라 ‘문명적 소리’와 ‘자연적 소리’ 그리고 ‘예술적 소리’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보헤미아 독일계 유대인으로 태어난 말러는 삼중으로 고향이 없는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 말러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글라우에 있는 숲은 그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 날 수 있는 도피처였다. 후에 작곡활동의 대부분도 직장을 벗어나 휴가 중일 때 자연 속에 지어진 별장에서 이루어졌다. 자연은 말러에게 문명을 벗어나 평온함을 주는 안식처였다. 에게브레히트는 이러한 삶이 그의 음악 속에서 이원론적 세계로 나타났다고 서술하였는데, 그것은 현실세계를 반영한 ‘문명적 소리’와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세계를 반영한 ‘자연적 소리’이다. 이러한 ‘문명적 소리’와 ‘자연적 소리’에 더하여 비스키르헨은 양쪽세계를 보고 느끼는 인간의 감정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것을 ‘예술적 소리’라고 설명하였다.

‘문명적 소리’는 군대행진음악 요소, 장송곡, 민속적 춤 등 세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자연적 소리’는 종소리, 알프스 호른 멜로디, 민속노래 선율 등 자연을 나타내는 소리이다. ‘예술적 소리’는 말러 이전부터 음악에서 감정표현을 위해 관용적으로 사용된 방식으로 반음계적으로 하행하는 신음하는 유형, 불협화성, 장단조의 변화, 급격한 셈여림의 변화 등이 있다.

본 연구자는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에 나타난 음악표현들을 ‘소리세계’를 세 가지로 정리한 비스키르헨의 이론에 따라 분류하며 각 곡별

로 살펴보았다. 이를 소리세계별로 정리하자하면 다음과 같다.

말러가 성장하면서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아 형성된 ‘문명적 소리’는 제1곡 <나의 연인이 결혼하는 날>에서 보헤미아 춤곡 음형으로, 제4곡 <두개의 푸른 눈>에서 장송행진곡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부터 현실을 벗어나 자연으로부터 안식을 찾던 그의 삶의 방식이 반영된 ‘자연적 소리’는 연인의 결혼식 때문에 슬퍼하는 화자에게 잠시나마 안식을 주는 자연을 묘사하는 소리로 표현되었다. 이는 제1곡 <나의 연인이 결혼하는 날>과 제2곡 <오늘 아침 들관 위를 걸었다>의 자연을 찬양하는 가사를 노래할 때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소리이며, 제4곡 <두개의 푸른 눈>에서 화자에게 처음으로 안식을 주는 ‘보리수’를 묘사한 음형이다. ‘예술적 소리’는 화자의 감정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말러 이전부터 작곡가들이 사용한 관용적인 수사학적 기법으로 장·단조의 변화로 사랑과 고통을 표현하거나 슬픔을 노래하는 하행하는 선율 등이 있다. 또한 말러가 그의 작품에서 곡의 끝 부분에 타악기가 나오며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던 것이 제3곡 <나는 불타는 칼을 가지고 있다>에도 나타났다.

연구하는 동안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의 말러가 직접 쓴 가사는 그의 ‘소리세계’를 이해하고 분류하여 고찰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가 말러의 삶을 공감하는 연주해석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며, 말러의 다른 작품 속에서도 그의 ‘소리세계’를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 1. 단행본

- 장미영. 『문학의 영혼 음악의 영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 Floros, Constantin. *Gustav Mahler II*. Kassel: Breitkopf & Härtel Wiesbaden, 1977.
- Müller, Karl-Josef. *Mahler, Leben·Werke·Dokumente*. Mainz: B.Schott's Schöne, 1988.
- Wißkirchen, Hubert. *Wort-Ton-Analyse*. Kassel: Gustav Bosse Verlag, 2002.

### 2. 번역된 단행본

- Adorno, Theodor W. 『말러, 음악적 인상학』. 이정하 번역. 서울: 책세상, 2004.
- Lebrecht, Norman. 『왜 말러인가?』. 이석호 번역. 경기도: 모요사, 2010.
- Schaufler, Wolfgang. 『말러를 찾아서』. 홍은경 번역. 서울: 포노, 2019.
- Walter, Bruno. 『구스타프 말러』. 김병화 번역. 서울: 도서출판 마티, 2010.

### 3. 학술논문

- 김미영. “F. 슈베르트와 리트”. 『서양음악학』. 서울: 한국서양악학회, 2001.
- 김주리. “Gustav Mahler의 연가곡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의 분석연구 : 시와 음악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안미선. “Gustav Mahler의 Symphony no.1 in D major에 나타난 연가곡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이효섭. “G.Mahler의 가곡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에 관한 연구분석”.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0.

정찬욱.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 1860~1911)의 연가곡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분석연구 : 가사와 관현악 반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한영주. “낭만주의 오케스트라 가곡 연구 : G. Mahler의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4. 악보

Mahler, Gustav.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Wien: Josef Weinberger, 1982.

Mahler, Gustav. *Des Knaben Wunderhorn*. Vienna: Universal Edition, 1905.

Mahler, Gustav. *Symphony No.5*. Leipzig: C.F. Peters, 1904.

Ravel, Maurice, *La Valse*. Paris: Durand & Cie., 1921.

Schubert's Werke, Serie XX: Sämtliche einstimmige Lieder und Gesänge Band 9, Leipzig: Breitkopf & Härtel, Plate F.S, 1895.

Strauss, Jr., Johan. *Wiener Blut*. Mainz: Musikverlag Cranz, 1957.

# ABSTRACT

‘The Sound World’ of Gustav Mahler  
Focusing on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Kim, Minju  
Department of Collaborative Piano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considers ‘The Sound World’(Klangwelt) of Gustav Mahler (1860–1911) by focusing on the song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The theoretical basis is Mahler’s ‘The Sound World’(Klangwelt) summarized by Hubert Wißkirchen(1934–2018). Wißkirchen classified Mahler’s ‘The Sound World’ into three. They are the ‘civilized sounds’(Zivilisationslaute) which represents the real world where Mahler lived and experienced, and the ‘natural sounds’(Naturlaute) unaffected by civilization and the ‘artistic sounds’(Kunstlaute) expressing the feelings he felt from these things.

The research method first examined Mahler's life and concretely summarized the 'The sound world' formed through his life. And the sound world that appeared in the song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which was composed by his own lyrics, was classified into 'civilized sound', 'natural sound' and 'artistic sound' based on Wißkirchen's theory.

Mahler expressed the real world in which the speaker of the song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was speaking as 'civilized sound'. For example, the rhythm of Bohemia shows the wedding atmosphere of the first song <Wenn mein Schatz Hochzeit macht>, and the fourth song <Die zwei blauen Augen> shows the heart of the speaker to say goodbye to the world in rhythm. Mahler, who escapes from the melancholy reality and gives a rest to the speaker for a while, is expressed as a 'natural sound', which is the nature of the first song <Wenn mein Schatz Hochzeit macht> and the second song <Ging heut' Morgen über's Feld> and And the fourth song <Die zwei blauen Augen>.

The musical expression techniques that composers used idiomatically to express human emotions from before Mahler were used as 'artistic sounds' to express the change of the emotions of the speaker in the song 《Lieder eines fahrenden Gesellen》. This is the contrast between major and minor for expressing the change of the speaker's mind and there are grieving melodies, chromatic progression, and dissonance. Mahler also used percussion instruments to symbolically represent death at the end of the piece in his work, which also appears in the third song <Ich hab' ein glühend Messer>, which can be classified as 'artistic

sound’.

As Mahler grew, what he was environmentally influenced became ‘civilized sound’, the way of his life, seeking rest in nature from his childhood, created a ‘natural sound’ and his music education in Vienna and experience as a conductor led him to form his ‘artistic sound’.